

직업가치관과 진로결정수준이 사회복지학 전공생의 전공몰입에 미치는 영향

강종수
강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Effects of Work Values and Career Decision Level on the Major Commitment of the University Students Majoring in Social Welfare

Jong-Soo Kang

Department of Social Welfare, Kangwon National University

요약 이 연구는 사회복지학 전공생을 대상으로 직업가치관과 진로결정수준이 전공몰입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실시된 것으로, 강원도 소재 4개 대학의 사회복지학과 재학생 351명에게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자료를 분석하였다. 직업가치관은 내재적 가치관과 외재적 가치관으로 측정하였고, 진로결정수준은 진로결정수준검사(CDS)를 사용하였으며, 전공몰입은 몰입상태척도(FSS)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연구 결과를 요약하면 첫째, 사회복지학 전공생의 직업가치관은 내재적 가치관은 4.05로 외재적 가치관 3.34 보다 높았으며, 진로결정수준은 3.43, 전공몰입은 3.54로 중간값 보다 높게 나타났다. 둘째, 외재적 가치관은 진로결정수준($r=-.55, p<.001$)과 전공몰입($r=-.51***$)에 부(-)적 상관관계를, 반면에 내재적 가치관은 진로결정수준($r=.47***$)과 정(+)적 상관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직업가치관과 진로결정수준이 전공몰입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다중회귀분석 결과 종합모형에서 직업가치관의 외재적 가치관은 전공몰입에 부(-)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beta=-.34, p<.001$), 반면에 내재적 가치관($\beta=.31, p<.001$)과 진로결정수준($\beta=.18, p<.001$)은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직업가치관, 진로결정수준 및 전공몰입에 관한 정책적 및 실천적 함의를 논의하였다.

Abstract This study examined the effects of work values and the career decision level on the major commitment of the university students majoring in social welfare. For this purpose, a survey of 351 undergraduate students majoring in social welfare at 4 universities located in Kangwon-do was conducted and the data were analyzed. The work values consisted of intrinsic values and extrinsic values. The career decision level was measured by the career decision scale (CDS) and the major commitment was measured by the flow state scale (FSS).

The research findings are as follows. First, the career decision level (3.43) and major commitment (3.58) of the university students majoring in social welfare were slightly higher than the mid-point on the 5 point Likert scale. In addition, the intrinsic work value (4.05) were higher than the extrinsic work value (3.34). Second, the intrinsic work values and career decision level were positively correlated with the major commitment. Third, the extrinsic work value had a negative effect on the major commitment ($\beta=-.34, p<.001$); however, the intrinsic work value ($\beta=.31, p<.001$) and career decision level ($\beta=.18, p<.001$) had a positive effects on the major commitment. This paper also discusses the theoretical and practical implications for university student's work values, career decision level, and major commitment based on the research findings.

Keywords : work values, career decision level, major commitment, career development, students majoring in social welfare

This study was supported by 2017 Research Grant from Kangwon National University(No. 620170085)

*Corresponding Author : Jong-Soo Kang (Kangwon National Univ.)

Tel: +82-10-5550-6126 email: jskang@kangwon.ac.kr

Received October 24, 2017

Revised January 2, 2018

Accepted February 2, 2018

Published February 28, 2018

1. 서론

사회복지학은 본질적으로 인간과 사회문제에 대한 과학적 분석과 문제해결을 위한 노력의 결과로 이루어진 지식체계로서 순수이론 중심이 아닌 문제해결 중심의 실천지향적 응용사회과학이다. 또한 사회복지학 교육과정을 통해 양성된 사회복지사는 다양한 사회적 개인적 욕구를 가진 클라이언트들의 문제에 대한 사정과 평가를 통해 문제 해결을 돕고 지원하는 일을 한다. 따라서 사회복지사는 다른 사람의 욕구와 행동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 문제해결 능력과 협상, 설득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며, 또한 무엇보다 인간 존중과 사회정의에 대한 사명 의식, 봉사정신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물론 이러한 자질과 성향은 교육과정을 통해 달성되고 향상되지만 내재된 직업가치관에 크게 영향을 받는다. 직업가치관은 개인의 직업선택이나 직업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일 뿐만 아니라 직업교육에 관한 정책 수립에 있어 기본적으로 고려해야 할 요소로서[1][2], 직업과 가치가 일치할수록 자신의 직업에서 만족할 가능성도 높아지고 [3], 실제 직업선택에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4]. 직업가치관은 학령기 초기에 형성되기 시작하여 직업세계로 이행하는 마지막 교육과정인 대학시기에 어느 정도 완성된다.

대학생의 경우 어떤 진로를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생활의 많은 부분이 영향을 받게 되는데, 진로결정과 취업은 청년기 대학생의 중요한 과제이며 가장 큰 스트레스이다[5]. 대학 상담기관을 이용하려는 학생 중 상당수가 진로문제를 호소하고 있는데[6], 대학생활 중 도움을 받고 싶은 첫 번째 상담 영역이나 가장 큰 고민거리는 ‘진로문제’인 것으로 나타났다[7]. 이러한 현실은 사회복지학 전공생이라 하여 예외일 수는 없다. 직업은 일에 대한 애정과 긍지, 만족과 보람을 통한 자아실현적 의미와 함께 삶의 질 향상과 행복 추구의 수단이므로 자기 진로에 대한 철저한 계획과 준비를 통해 직업에 대한 신중한 선택과 노력이 뒷받침 되어야 한다[8][9].

대학과 직업세계는 단절된 경로가 아니라 대학 재학 중의 취업준비와 입직, 이직으로 이어지는 연속적인 과정으로, 이런 지속적인 경험을 통해 청년층은 삶과 직업에 대해 학습을 하게 된다[10][11]. 전공에 몰입하는 학생들은 졸업 이후의 진로에 대해 뚜렷한 목표의식을 갖고 구직활동을 하고, 개인의 학교생활에 대한 만족도가 높아지며 이는 자신의 전공과 일치하는 직업으로 진출하

게 될 가능성이 높다[12]. 사회복지학 전공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대학생활과 교육과정에 대한 만족 정도가 높을수록 취업률도 높아지고 자신의 직업에 만족하는 정도 역시 높아진다[9][13]. 특히 사회복지사의 과다 배출과 높은 이직률 등으로 사회복지학 전공생들의 진로 문제가 심각한 현실에서 진로결정수준이 높을수록 적극적인 진로준비행동을 하게 되어 취업으로 연결될 것이다.

이러한 연구 결과들은 결국 어떤 직업가치관을 갖느냐가 진로결정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고, 전공 교육과정에 만족하고 몰입할수록 사회복지직으로의 진로결정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직업가치관이 사회복지사를 지향하는 사회복지학 전공생의 전공 교육과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진로결정수준이 높을수록 또한 전공 교육과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본 연구들은 찾아보기 어렵다. 직업가치관이 진로결정에 또는 전공몰입이 진로결정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기 보다는 진로결정수준이 높을수록 그리고 또한 직업가치관이 전공몰입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는 것이 더 필요하다 할 것이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사회복지사에게 적합한 직업가치관은 무엇이며 또한 사회복지학 전공교육에 몰입하게 하는 요인이 무엇인지 규명함으로써 보다 우수한 사회복지사로 양성되도록 실천적 함의를 도출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실증적 연구를 바탕으로 사회복지학 전공생을 대상으로 직업가치관과 진로결정수준을 분석하고 전공몰입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탐구하고자 한다.

2. 이론적 배경

직업가치관(Occupational Values)은 직업에 대한 태도[1], 또는 일을 통하여 실현되기를 원하고 또 실현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궁극적인 상태[14]를 말하며, 이는 가족, 학교 등의 환경뿐만 아니라 사회매체와의 상호작용을 통하여 형성되는 특정 직업이 아닌 일반화된 개념으로서 직업에 대한 개인의 관점 또는 견해를 말한다. 유사개념으로 직업관, 직업의식 등이 있고 엄밀하게는 구분되기도 하나 통상적으로는 유사한 의미로 사용된다[15]. 직업가치관이 중요한 이유는 가치관이란 한 번 형성되면 쉽게 변하지 않으면서 오랫동안 직업과 관련된

행동방향 선택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직업가치관은 다양한 분류법 내지 구성요인들이 있으나 내재적 가치관과 외재적 가치관으로 구분하는 것이 또한 일반적이다[16][17]. 전자는 직업생활을 통해 자신의 능력을 발휘하고 사회에 헌신하며 인간관계를 중시하고 이상을 추구하며 자기를 표현하고자 하는 의식의 표현으로 직업 자체에 의미를 부여하는 것을 의미하고, 후자는 경제적인 측면과 권력 추구, 사회적 위세에 대한 인식을 중시하는 등 직업을 도구적 가치로 보고, 임금, 기업복지, 직업안정 등과 같이 일에 따르는 물질적 보상이나 조건에 보다 큰 의미를 부여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진로결정수준(Career Decision Level)은 자신의 전공이나 직업선택과 관련한 진로결정과정에서 나타나는 진행수준과 장래의 진로에 대한 확고한 정도로서 [18], 진로결정과 진로미결정을 양극단으로 하는 연속선상의 어느 한 지점을 말한다[19]. 일반적으로 진로결정은 바람직한 진로교육을 통해서 진로설계와 계획이 장기간에 걸쳐 이루어진 결과 진로를 결정해야 하는 결정적 시기에 합리적으로 진로를 결정할 수 있게 된 상태를 의미하며, 보다 구체적으로는 취업 전에 이미 자신이 종사하고자 하는 업종이나 기업, 직무까지 결정했음을 의미한다[18]. 따라서 진로결정수준이 높을수록 진로미결정으로 인한 불안을 줄이고 구체적인 진로준비행동을 통해 취업의 기회를 높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만일 사회복지직으로의 진로결정이 이루어졌다면 보다 뚜렷한 목표의식을 갖고 그 분야로의 진출을 위해 필요한 구체적인 전공지식 내지 이른바 스펙 준비를 위해 노력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전공몰입은 전공분야에 대해 심리적으로 폭 빠져 있는 애착의 상태로[15], 특정 대상에 대한 만족과 더불어 어떤 대상에 대한 행위 과정에 감정과 인지적으로 폭 빠져 있는 상태를 의미한다. 원래 몰입은 조직심리학의 Allen & Meyer[20] 등의 조직몰입에서 시작된 것으로 Morrow[21]는 몰입의 초점에 따라 다양한 몰입형태가 있을 수 있다고 하였다. Mowday, Porter & Steers[22]는 조직몰입을 통해 개인은 조직으로부터의 보상뿐만 아니라 심리적 만족감을 얻을 수 있고, 조직입장에서는 결근, 이직, 또는 성과 측면에서 조직의 목표달성에 유익할 수 있다고 하였다. 이러한 논의를 전공몰입에 확장하면 전공몰입도가 높을수록 학교생활에 대한 적응도뿐만 아니라 학업성취도가 높아질 수 있다.

이러한 전공몰입은 진로결정이나 전공분야의 취업률에 높은 영향을 미친다[12][23][24]. 전공몰입이 높을수록 해당 전공분야에 대한 취업률이 높은 이유로는 첫째, 전공에 대해 뚜렷한 목표의식을 갖고 전공과 관련된 분야에서 일할 의지를 가질 것으로 예상할 수 있고 둘째, 진로에 대해 뚜렷한 목표의식을 가진 경우 자신의 미래에 대해 비교적 일찍 준비할 가능성이 높으며 그런 가능성은 전공과 비전공 과목의 학점관리와도 관련될 것이다 [25][26][27].

직업가치관과 진로결정수준 및 전공몰입에 관한 선행연구들에서 주로 직업가치관은 전공몰입이나 전공만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28][29], 특히 주로 내재적 직업가치관이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29][30]. 이러한 결과는 사회복지직 취업의 도에는 보수 같은 경제적 안정이나 사회적 명예보다는 흥미와 적성, 성취감 등이 더 중요하게 작용함을 시사한다. 또한 일반적으로는 전공만족이나 전공몰입이 진로결정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으나 [12][13][18][28], 오히려 진로결정수준이 전공몰입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도 할 수 있다. 즉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미 사회복지직 취업의사를 결심한 상황이라면 뚜렷한 목표의식을 갖고 오히려 전공 교육과정에 보다 긍정적이고 능동적으로 참여하게 되어 전공몰입이 높아질 것이기 때문이다.

3. 연구방법

3.1 대상자 및 자료수집 방법

본 연구의 조사대상은 강원도 소재 4년제 대학 중 영동과 영서지역 각 2개 대학의 사회복지학과 재학생으로, 조사는 대학별로 전임교수가 학년별 전공수업 시작 전에 조사의 취지를 설명하고 이에 동의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하여 실시하였다. 대학별로 100부씩 배포하여 384부를 회수하였으며(회수율 96%), 이 중에서 무응답치가 많거나 일관된 응답을 보인 불성실 33부를 제외한 총 351부를 최종적으로 분석에 사용하였다.

3.2 측정도구

본 연구에서 사용한 측정도구는 다음과 같다. 우선 직

업가치관은 직업선택 및 결정에서 직업과 관련된 여러 가지 특성과 보상 가운데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하는가에 대한 개인의 생각으로, 내재적 가치관 4문항과 외재적 가치관 4문항으로 구성된 안강현과 이용환[2]의 도구를 사용하였다. 내재적 가치관은 능력 발휘, 성취감, 사회봉사, 적성과 흥미를 포함하고, 외재적 가치관은 보수, 명예나 지위, 경제적 안정, 노동환경을 포함한다. 가령 ‘나는 직업선택 및 결정에 ~를 중요시한다’로 측정하였다. 모든 문항은 Likert식 5점 척도로 측정하였으며(1=‘전혀 그렇지 않다’~5=‘매우 그렇다’), 평균의 합으로 복합지표화(composite index) 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직업가치관이 높음을 의미한다. 측정도구의 신뢰도는 전체가 Cronbach’s $\alpha=.81$ 이고, 하위요인으로 외재적 가치관은 $\alpha=.90$, 내재적 가치관은 $\alpha=.80$ 으로 나타났다.

사회복지학 전공생의 진로결정수준은 Osipow 등[31]이 개발하고 고향자[32]가 변안한 진로결정수준 검사(Career Decision Scale: CDS)를 사용하였다. 다만 원척도에서 자유보고식 1문항을 제외한 18문항을 사용하였으며, 원 척도는 학문분야 내지 구체적인 진로를 표시하지 아니하여 문항들에 ‘사회복지직’ 혹은 ‘사회복지사’로 표기하여 사회복지직으로의 진로결정임을 명확히 하였다. 가령 “나는 장래 직업을 결정했으며 그 결정에 대해 편안함을 느낀다”, “나는 사회복지사가 될 능력이 없지만 그렇다고 또다른 대안을 생각해 보지 않았다” 등의 문항으로 측정하였다. 각 문항은 5점 리커트척도로 측정하였으며, 진로 미결정수준은 역점수 처리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전공선택에 대한 확신과 진로결정수준이 높음을 의미한다. 측정도구의 신뢰도는 $\alpha=.94$ 로 나타났다.

전공몰입은 Jackson & Marsh[26]가 개발한 몰입상태 척도(Flow State Scale)를 김혜주[33]가 수정한 34문항 중에서 각 요인별로 요인적재량이 높은 순으로 추출한 20문항을 사용하였다. 원척도는 주로 실습수업에서의 몰입상태를 측정하는 도구로 개발되었으나 사회복지학 전공수업은 상당부분 이론수업으로 진행된다는 점과 몰입의 결과가 결국 행동적·인지적·정서적 요인으로 분류된다는 Mundell[34]의 연구결과를 반영하였다. 이 척도는 정서적 몰입, 행동적 몰입, 지적 몰입 및 시간적 몰입의 네 하위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가령 “나는 적극적으로 전공수업에 참여한다”, “전공수업에서 주어지는 과제를 열심히 하려고 노력한다” 등의 문항으로 측정하였다. 모든 문항은 Likert식 5점 척도로 측정하였으며, 역

시 복합지표화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전공몰입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측정도구의 신뢰도는 $\alpha=.96$ 으로 나타났다.

Table 1. Questionnaire’s reliability

Variables	Items	Cronbach’s α
Work values	8	.81
- intrinsic values	4	.90
- extrinsic values	4	.80
Career decision level	18	.94
Major commitment	20	.96
- Emotional commitment	5	.87
- Behavior commitment	5	.83
- Intellectual commitment	5	.87
- Time commitment	5	.85

3.3 자료분석 방법

본 수집된 자료의 분석방법은 주요 변수의 수준 및 자료의 분포적 특성은 빈도, 평균 및 표준편차 등의 기술통계분석을 실시하였고, 측정도구의 신뢰도분석을 실시하였다. 인구사회적 특성에 따른 주요 변수의 차이를 검증하기 위해 t-검정 및 일원배치 분산분석(ANOVA)를 실시하였으며, 주요 변인간의 상관분석을 실시하여 다중공선성 여부를 일차적으로 진단한 후에 직업가치관과 진로결정수준이 전공몰입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모형별로 위계적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4. 연구결과

4.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조사대상자의 인구사회적 특성을 살펴보면 다음 Table 2와 같이 전체 조사대상자는 351명으로 이 중에서 성별로 남학생이 155명 44.2%이고, 여학생이 196명 55.8%로 여학생이 조금 더 많고, 학년별로는 균등하게 할당되지 못해 1학년이 74명(21.1%), 2학년은 91명(25.9%), 3학년은 91명(25.9%), 4학년은 95명(27.1%)로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21세 이하가 132명(37.6%), 22~23세가 112명(31.9%), 24~25세가 68명(19.4%), 26세 이상이 39명(11.1%)으로, 평균은 23.8세이다. 대학의 특성상 복학생 때문에 학년 분포와 연령 분포가 비슷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Table 2. Demographic characteristics of the respondents

Variables		N	%	M(SD)
Gender	Male	155	44.2	-
	Female	196	55.8	
Grade	1	74	21.1	-
	2	91	25.9	
	3	91	25.9	
	4	95	27.1	
Age (year)	~21	132	37.6	23.8 (6.03)
	22~23	112	31.9	
	24~25	68	19.4	
	26~	39	11.1	

4.2 주요변수의 기술통계치

기술통계분석을 실시하여 주요 변수들의 분포적 특성을 파악한 결과 Table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사회복지학 전공생들의 직업가치관은 내재적 가치관이 4.05(SD=.56)로 Likert 5점 척도의 중간값 보다 높고 외재적 가치관 3.34(SD=.87) 보다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진로결정수준은 3.43(SD=.77)으로 나타났으며, 전공몰입 역시 3.54(SD=.73)으로 중간값 보다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또한 참고로 측정도구의 왜도와 첨도값을 통해 자료의 정규성 여부를 살펴본 결과 일반적인 기준인 왜도는 절대값 3미만, 첨도는 10미만에 해당하여 안정적 자료의 분포적 특성을 보여주고 있다.

Table 3. Descriptive Statistics of variables

Variables	Mean	SD	Min.	Max.	Skew.	Kurt.
Work values	3.76	.51	2.13	5.00	.07	-.28
- Intrinsic values	4.05	.56	2.25	5.00	-.31	.01
- Extrinsic values	3.34	.87	1.40	5.00	-.03	-.56
Career decision level	3.43	.77	1.50	5.00	.17	-.84
Major commitment	3.54	.73	1.40	5.00	-.07	-.47
- Emotional commitment	3.67	.77	1.20	5.00	-.34	-.24
- Behavior commitment	3.74	.66	1.40	5.00	-.26	.20
- Intellectual commitment	3.41	.86	1.20	5.00	-.11	-.64
- Time commitment	3.34	.87	1.40	5.00	-.03	-.56

4.3 변수 간 상관관계 분석

직업가치관과 진로결정수준 및 전공몰입 등 주요 변수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다음 Table 4에서 보는 바와 같이 외재적 가치관이 높을수록 진로결정수준과 진

공몰입은 부(-)의 관계를 갖고 있으며, 반면에 내재적 가치관이 높을수록 진로결정수준과 전공몰입은 높게 나타났다. 또한 진로결정수준이 높을수록 전공몰입 역시 높게 나타났다($r=.52^{***}$). 학년은 모든 변수들과 무관하며, 연령은 높을수록 또한 진로결정수준($r=.47^{***}$)과 전공몰입($r=.49^{***}$)이 높게 나타났다.

Table 4. Pearson's correlation matrix

Variables	①	②	③	④	⑤
① Grade	1				
② Age	.67 ***	1			
③ Extrinsic values	-.11 *	-.23 ***	1		
④ Intrinsic values	.02	.26 ***	-.23 ***	1	
⑤ Career decision level	.16 **	.47 ***	-.55 ***	.47 ***	1
⑥ Major Commitment	.07	.49 ***	-.51 ***	.49 ***	.52 ***

* $p<.05$, ** $p<.01$, *** $p<.001$

4.4 인구사회적 특성별 주요변수 비교

인구사회적 특성에 따른 직업가치관과 진로결정수준 및 전공몰입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는 Table 5와 같다.

첫째, 성별은 직업가치관($t=2.18^*$)에서 차이가 있을 뿐 진로결정수준이나 전공몰입에는 아무런 차이가 없으며 둘째, 학년에 따라서는 직업가치관과 전공몰입에 아무런 차이가 없고, 다만 진로결정수준에서 고학년이 저학년보다 높게 나타났다. 셋째, 소속 대학에 따라서 직업가치관은 차이가 없으나 진로결정수준($F=4.48^{**}$), 전공몰입($F=5.21^{***}$)에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직업가치관은 이미 대학 입학 전에 결정되므로 학년이나 소속 대학에 따라 차이가 없지만, 진로결정수준은 학년이 높아지고 대학의 교육환경에 따라 차이에 발생하며, 전공몰입 역시 성별이나 학년에는 차이가 없고 소속 대학의 교육환경이나 수준에 따라 차이가 발생한다고 보여진다.

4.5 직업가치관과 진로결정수준이 전공몰입에 미치는 영향

사회복지학 전공생의 직업가치관과 진로결정수준이 전공몰입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 인구사회적 특

성인 성별, 연령 및 소속대학을 투입한 인구사회모형, 직업가치관을 투입한 직업가치관모형, 최종적으로 진로결정수준까지 투입한 종합모형으로 구분하여 단계적으로 실시하였다. 다만 학년과 연령은 높은 상관관계로 인해 다중공선성의 우려가 있어 연령만 투입하였다.

우선 인구사회적 특성변수만 투입한 모형에서는 연령과 소속 대학교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이 높아질수록 전공몰입도가 높아지고, 기준변수로 삼은 A대학교에 비해 다른 대학들이 긍정적 혹은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대학별로 교육여건이나 상황이 학생들의 전공몰입에 차등적으로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다. 다음으로 직업가치관은 투입한 모형에서는 외재적 가치관은 부정적으로($\beta=-.42, t=-10.15^{***}$), 내재적 가치관이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beta=.38, t=9.09^{***}$). 모형설명력은 $R^2=.45$ 로 인구사회모형에 비해 대폭 향상되었다.

마지막으로 진로결정수준까지 모두 포함한 종합모형에서는 성별은 변함없이 유효하게 영향을 미치고 다만 소속 대학교의 영향력은 대폭 감소하였으며, 직업가치관은 외재적 가치관($\beta=-.34, t=-7.24^{***}$)과 내재적 가치관($\beta=.31, t=6.96^{***}$) 모두 영향력의 크기에는 약간의 변동이 있지만 유효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진로결정수준 역시 유의한 수준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beta=.18, t=3.36^{***}$). 모형설명력은 $R^2=.47$ 로 소폭 상승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사회복지학 전공생의 경우 성별은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연령이 많을수록 전공몰입도는 높아진다고 할 수 있으며, 소속 대학교에 따라라도 영향을 받는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외재적 가치관을 가진 경우에는 오히려 전공몰입도가 떨어지고 내재적 가치관을 가진 경우에는 전공몰입도가 높아진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진로결정수준이 높아질수록 전공몰입도 역시 높아짐을 알 수 있다.

Table 5. Comparison of mean

Variables		Work values		Career decision level		Major Commitment	
		Mean (SD)	t/F	Mean (SD)	t/F	Mean (SD)	t/F
Gender	Male	3.84 (.55)	2.18*	3.37 (.77)	-1.30	3.56 (.75)	.58
	Female	3.71 (.46)		3.48 (.76)		3.52 (.72)	
Grade	1 ^a	3.87 (.42)	1.46	3.15 (.55)a	4.40** (a<b,c,d)	3.42 (.62)	1.80
	2 ^b	3.74 (.52)		3.46 (.75)b		3.50 (.72)	
	3 ^c	3.73 (.53)		3.55 (.82)b		3.68 (.82)	
	4 ^d	3.76 (.51)		3.50 (.82)b		3.52 (.74)	
University	A ^a	3.83 (.50)	1.94	3.41 (.66)	4.48** (b<a,c,d)	3.43 (.69)	5.21*** (a,b<c,d)
	B ^b	3.83 (.42)		3.21 (.59)		3.35 (.57)	
	C ^c	3.72 (.55)		3.47 (.88)		3.73 (.78)	
	D ^d	3.67 (.51)		3.63 (.85)		3.65 (.82)	

*p<.05, **p<.01, ***p<.001

Table 6. Regression results for major commitment

Independent variables		Demographic model			Work values model			Total model		
		β	t	VIF	β	t	VIF	β	t	VIF
(Constant)			15.97			6.93			5.23	
Demo	Gender(Female)	-.02	-.33	1.05	-.03	-.73	1.06	-.03	-.92	1.07
	Age	.24***	4.21	1.24	.21***	4.64	1.25	.20***	4.58	1.25
	University (B)	-.13*	-2.05	1.64	-.03	-.49	1.68	-.02	-.38	1.68
	University (C)	2.59**	2.60	1.47	.11*	2.31	1.48	.12*	2.47	1.48
	University (D)	.12*	1.99	1.49	.03	.54	1.52	-.03	-.92	1.07
Extrinsic values					-.42***	-10.15	1.11	-.34***	-7.24	1.48
Intrinsic values					.38***	9.09	1.09	.31***	6.96	1.32
Career decision level								.18***	3.36	1.79
R^2 (Adj. R^2)		.08			.45			.47		
ΔR^2		-			.37			.02		
D-W		1.90			1.77			1.86		
F		5.94***			36.38			34.57***		

*p<.05, **p<.01, ***p<.001

Note: Gender(0)=Male, University(0)=A

5. 결론 및 논의

본 연구에서는 사회복지학 전공생을 대상으로 직업가치관과 진로결정수준이 전공몰입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 보기 위해 강원권 4개 대학의 사회복지학과 재학생 351명을 대상으로 구조화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분석하였다. 연구결과를 요약하고 함의를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사회복지학 전공생들의 전공몰입도는 3.54로 중간값 보다 높은 수준을 보여주고 있으며, 직업가치관에서는 내재적 가치관(4.05)이 외재적 가치관(3.34)에 비해 높은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즉 기본적으로 보수와 같은 경제적 보상이나 사회적 명예보다는 흥미와 적성, 성취감 등이 더 중요하게 의미부여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진로결정수준 3.43으로 역시 중간값 보다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결과는 선행연구의 3.50[35]와 비슷한 수준이다.

둘째, 인구사회적 특성변수별 주요변수를 비교한 결과 성별은 직업가치관에서 차이가 있을 뿐 진로결정수준이나 전공몰입에 차이가 없으며, 학년에 따라서는 진로결정수준에서 고학년이 저학년보다 높게 나타났다. 소속 대학교에 따라 직업가치관은 차이가 없으나 진로결정수준과 전공몰입에서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년이나 연령이 높아짐에 따라 진로결정수준이 높아지는 것은 당연한 현상이라 할 수 있으나 대학에 따라 진로결정수준과 전공몰입에 차이가 나는 것은 대학의 교육환경이나 교육수준에 따라 차이가 발생한다고 할 것이므로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다. 학생의 요구와 눈높이에 맞는 적절한 교수법의 개발과 교육과정 및 교육환경 개선 등을 통해 학생들이 전공수업에 몰입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할 것이다.

셋째, 직업가치관과 진로결정수준이 전공몰입에 미치는 영향을 회귀분석한 결과 직업가치관에서 외재적 가치관은 부(-)적 영향을, 내재적 가치관은 정(+)적 영향을 미치고, 진로결정수준 역시 전공몰입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주요 변수들간의 상관관계 결과 및 선행연구 결과와 유사하다[29][30]. 결국 사회복지학을 전공하면서 앞으로 부와 명성을 추구한다면 사회복지사로서의 직업적 성격과는 맞지 아니하며, 이러한 직업가치관을 가질수록 전공몰입도와 진로결정수준은 떨어지게 된다. 반면에 사회복지학에 흥미와 적

성, 성취감과 보람 등을 기대하는 내재적 가치관을 갖고 있는 학생이라면 상대적으로 전공몰입과 진로결정수준인 높아지게 된다. 따라서 학생 선발과정에서 이를 참고할 뿐만 아니라 재학생들에게 사회복지직에 요구되는 직업적 자세와 태도 등을 인식시켜야 할 것이다. 성별은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연령과 소속 대학교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진로결정수준이 높을수록 전공몰입 역시 높아진다는 결과는 시사하는 바가 크다. 서론에서 밝힌 바와 같이 대학생들은 진로문제가 가장 큰 스트레스임에도 오히려 진로결정수준이 높을수록 전공교육에 몰입하게 되므로 조기에 진로를 결정하도록 시스템적이고 효과적으로 지원한다면 전공수업에 임하는 자세와 열의가 높아져 결과적으로 높은 학점과 취업 준비를 통해 높은 취업기회를 획득하게 되는 선순환을 가져올 것이다. 전공몰입이 높을수록 진로결정이나 전공분야로의 취업률에 높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12][23][24]. 따라서 대학본부 주관의 일반적인 진로탐색이나 취업탐구 같은 프로그램 이외에 사회복지학 전공에 맞도록 다양한 사회복지현장을 이해하고 전문영역을 학습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고, 실습교육이나 자원봉사활동을 통해 본인의 적성과 자질에 적합한 진로를 조기에 탐구할 수 있는 제도적 노력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다.

대학 재학 중에 구체적인 취업 진로를 결정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가장 큰 대학생활 스트레스 요인을 해소할 뿐만 아니라 장차 사회복지사에게 요구되는 다양한 학문적 소양을 전공몰입을 통해 갖출 수 있게 되어 좋은 취업의 기회뿐만 아니라 보다 유능한 사회복지사로 활동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사회복지직에 적합한 직업가치관을 갖도록 지도함이 학문적 내지 직업적 정체성과 일치하게 되어 취업 후에 겪게 될 좌절이나 실망감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함의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은 한계를 갖는다. 우선 자료수집이 조사대상자의 주관적 인식에 기초한 정량적 조사이며 자료 수집이 강원도에 한정되고 횡단적 연구이므로 일반화의 한계가 있다. 또한 직업가치관을 확립하기 위한 그리고 진로결정수준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후속 연구들이 지속되어야 할 것이다.

References

- [1] J. F. Kinnane and M W. Pable, "Family background and Work Value Orientation",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vol. 9, no. 4, pp. 185-198, 1962.
DOI: <https://doi.org/10.1037/h0045208>
- [2] K. H. Ahn and Y. H. Lee, "A Study on the Types of Work Values of the Junior College Students", *The Journal of Vocational Education Research*, vol. 17, no. 1, pp. 1-17, 1998.
- [3] Y. K. Au, "A Multilevel Analysis on Change of a College Student's Job Aspiration and the Effect of Career Counseling", *The Korea Journal of Counseling*, vol. 10, no. 3, pp. 1555-1571, 2009.
DOI: <https://doi.org/10.15703/kjc.10.3.200909.1555>
- [4] S. Y. Choi, "An Analysis of Differences in Employment Strategy Based on Work Subtypes of University Students", Kyounggi University, 2015.
- [5] H. S. Jang, "The Source of Stress of University Students and Their Coping Strategies", *Journal of Student Guidance Research*, vol. 32, no. 1, pp. 101-115, 2000
- [6] E. Y. Kim, "A Study for the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the Korean College Students' Career barrier Inventory", Ewha Womans University, 2001.
- [7] M. J. Keum and H. J. Nam, "College Freshmen's Expectations about College Life and Their Mental Status", vol. 31, no. 1, pp. 105-127, 2010.
- [8] So. Y. Park, J. K. Kim and T. Y. Lee, "Effect of Occupational Therapy Volunteering on Self-esteem and Self-efficiency in University Students", *Journal of korean Contents*, vol. 11, no. 2, pp. 376-384, 2011.
DOI: <https://doi.org/10.5392/JKCA.2011.11.2.376>
- [9] J. S. Kang, "Effect of Volunteering on Career Development of the University Students Majoring in Social Welfare", *Journal of korean Contents*, vol. 15, no. 6, pp. 236-246, 2015.
DOI: <http://dx.doi.org/10.5392/JKCA.2015.15.06.236>
- [10] K. R. Roh, Y. H. Park, and S. J. Hur, "Analysis on the Relationship between Youth Workers' Experience in College Education Services and Job Transition", *The Journal of Vocational Education Research*, vol. 30, no. 1, pp. 29-49, 2011.
- [11] J. Y. Jung, "The Analysis on the Casual Model between University Educational Satisfaction and Occupational Satisfaction mediated by Occupational Values", *Journal of Korean Educational Administration*, vol. 31, no. 1, pp. 53-83, 2013.
- [12] J. Y. Chang, H. C. Shin & J. Y. Lee, The Effect of Commitment toward College Major on the Quality Of Employment among College Graduates, *The Korean Journal of Industrial and Organizational Psychology*, vol. 20, no. 4, pp. 415-435. 2007.
DOI: <https://doi.org/10.24230/ksiop.20.4.200711.415>
- [13] J. Y. Nam, "The Relationship Between Individual Work factors and Preparation of Employment in University students", *Journal of Adolescent*, vol. 12, no. 4, pp. 353-375, 2010.
- [14] W. R. Nord, A. P. Brief, J. M. Atieh and E. M. Doferty, Studying Meanings of Work: The case of work values, In A. P. Brief and W. R. Nords(Eds), Meaning of Occupational Work, Mass: Lexington Books, 1990.
- [15] S. H. Nam, Major Commitment and Work Values, *The Korean Society of Educational Psychology*, vol. 19, no. 1, pp. 223-242. 2005.
- [16] H. C. Kazanas, L. D. Hannah and T. G. Gregor, "An Instrument to measure the Meaning and the Value Associated with Work", *Journal of Industrial Teacher Education*, vol. 12, no. 4, pp. 68-73, 1975.
- [17] D. E. Super, Manual for Work Values Inventory, Houghton Mifflin Company, 1970.
- [18] B. H. Kim and K. H. Kim, "Career Decision Level and Career Preparation Behavior of the College Students", *The Korean Journal of Industrial and Organizational Psychology*, vol. 9, no. 1, pp. 311-333, 1997.
- [19] C. R. Wanberg and P. M. Muchinsky, "A Typology of Career Decision status: Validity extension of the Vocational Decision Status Model,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Vol.39, No.1, pp. 71-80, 1992.
DOI: <https://doi.org/10.1037/0022-0167.39.1.71>
- [20] N. J. Allen, J. P. Meyer, "The Measurement of Antecedents of Affective, Continuance and Normative commitment to the Organization", *Journal of Occupational Psychology*, 63, pp. 1-18, 1990.
DOI: <https://doi.org/10.1111/j.2044-8325.1990.tb00506.x>
- [21] P. C. Morrow, "Concept Redundancy in Organizational Research: The Case of Work Commitment", *Academy of Management Review*, 8, pp. 486-500, 1983.
- [22] R. T. Mowday, L. W. Porter, & R. M. Steers, Employee-Organization Linkages, Academic Press. New York. 1982.
DOI: <https://doi.org/10.5465/AMR.1983.4284606>
- [23] H. S. Ha, A Study of Department Satisfaction and School Satisfaction of Undergraduate Student.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1999.
- [24] D. W. Eom, The Status and Causes of Early Separation of College Graduate Newcomers: Focusing on the HRM Perspectives. *Journal of Vocational Education & Training*, vol. 11, no. 2, pp. 237-260, 2008.
- [25] W. Patton & P. A. Creed, "Development Issues in career Maturity and career Decision", *The Career Development Quarterly*, vol. 49, no. 4, pp. 336-351, 2001.
DOI: <https://doi.org/10.1002/j.2161-0045.2001.tb00961.x>
- [26] S. A. Jackson & H. W. Marsh,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Scale to Measure Optimal Experience: The Flow State Scale", *Journal of Sport & Exercise Psychology*, 18, pp. 17-35. 1996.
DOI: <https://doi.org/10.1123/jsep.18.1.17>
- [27] J. O. Crites, Career counseling: model, methods, and materials. New York: MacGraw-hill. 1981.
- [28] I. S. Park and M. J. Kim, "Influence of Job Selection Motive and Occupational Values on Major Satisfaction and Job Preparation Behavior in Case of Students who are Majoring in Airline Services", *International Journal of Tourism and Hospitality Research*, vol. 29, no. 6, pp. 139-151, 2015.
- [29] Y. J. Han, "The Stud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Degree of Instruction Participation and Major Satisfaction and the Employment Preparation Behavior

- by the Major Selection Motive and their Work Valuers of university students”, Kyungsoong University, 2014.
- [30] S. G. Park and H. S. Lee, “The Effect of Perceived Work Values of University Students' on Major Satisfaction and Major Commitment : Focused on University Students of the Hotel Tourism Management Department”, *Tourism Institute of Northeast Asia*, vol. 12, no. 1, pp. 219-235, 2016.
- [31] S. H. Osipow, C. G. Carmey and A. Barak, "A Scale of Educational-vocational Undecidedness: A Typological Approach",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9, pp. 233-243, 1976.
DOI: [https://doi.org/10.1016/0001-8791\(76\)90081-6](https://doi.org/10.1016/0001-8791(76)90081-6)
- [32] H. J. Koh, “A Study on the Effect of Career Counseling on Korean College Students' Decision Making styles and on Career Decision making status”, Sookmyung women’s University, 1992.
- [33] H. J. Kim, The Influence of College Students; Major Satisfaction and Flow Experience on Career Decision Efficacy and Career Attitude Maturity.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Sungkyunkwan University. 2007.
- [34] C. E. Mundell, The Role of Perceived Skill, Perceived Challenge, and Flow in the Experience of Positive and Negative affect,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George Mason University.
- [35] Y. J. Bae & S. J. Shim, The Relationship between Internal and External Career Barriers Perceives by Students Majoring in Social Welfare and Social Welfare Career Decision Level: The Mediating Effects of Career Aspiration, *Social Science Research Review*, vol. 29, no. 4, pp. 67-91. 2013.

강 종 수(Jong-Soo Kang)

[정회원]



- 1998년 2월 : 대구대학교 대학원 산업복지학과
- 2007년 8월 : 부산대학교 대학원 사회복지학과(사회복지학박사)
- 1998년 3월 ~ 2008년 2월 : 노무법인 정평 대표노무사
- 2008년 2월 ~ 현재 : 강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관심분야>

사회복지정책, 사회복지행정, 사회복지법